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강범모*†

고려대학교

Beom-mo Kang. 2011. On the Concepts and Translations of Terms Related to “Meaning” in Semantics. *Language and Information* 15.1, 79–92. Some terms related to “meaning” in semantics are reviewed, particularly those used in Lyons’ famous semantics book *Semantics 1* and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Since Lyons’ book is so comprehensive that the semantic terms used in that book cover almost every important notions/terms used in contemporary semantics. With relevant interpretation of the terms, we suggest most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s, trying to give different translations for different English terms. Terms covered include: ‘signify, signification; reference/refer/referent, sense; denotation/denote, connotation/connote; extension, intension; implication/imply, implicature/implicate, entailment/entail; designate, demonstrate/demonstrative’. (**Korea University**)

Key words: 의미 (meaning), 기의작용 (signification), 지시 (reference), 지시물 (referent), 뜻 (sense), 표시의미 (denotation), 암시의미 (connotation), 외연 (extension), 내포 (intension), 함의 (implication), 함축 (implicature), 논리함의 (entailment), 가리킴 (demonstration)

1. 의미와 의미론

의미론은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의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단어 ‘의미’ 그리고 영어의 ‘meaning’의 일상적인 용법은 다양하다 (Lyons 1977 참조).

* 이 논문에서 다루는 용어들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번역어들을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조사하지는 않았다. 여기서의 의미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즉 단어 ‘의미’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즉 의미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는) 여러 용어들이 중복 없이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새 역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제시한 것들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이므로 의미론 연구자에게 참고와 논의의 대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자들과 편집자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이메일: bmkang@korea.ac.kr

- (1) a. ‘문벳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b. What is the meaning of ‘gothic’?
- (2) a. 돈은 진정한 탐구자에게 의미가 없다.
 b. The meaning of life is not money.
- (3) a. 그가 하늘을 보았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b. She did not mean to surprise the boy.

(1)의 ‘의미’(meaning)는 단어나 표현의 기술적 의미를 뜻하고, (2)의 ‘의미’는 가치를 뜻하며, (3)의 ‘의미’는 의도를 뜻한다. 자연언어의 의미론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의 ‘의미’이다. 이 경우의 ‘의미’는 전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대중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이며, 전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¹

문제는 언어학, 특히 의미론에서 전문적으로 정의되는, 특수한 측면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이다. 의미의 여러 종류 또는 측면에 대해서 특수한 전문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같은 용어를 학자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있다. 더군다나 외국의 (영어)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역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의 경우 더 큰 혼란이 있다. 여기서는 라이언스의 「의미론」(1977)에 나타난, 의미론의 근본적 연구 대상인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전문용어들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것들에 해당하는 한국어 용어들을 제안하려고 한다.²

역어 제안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 (4) 역어 선택의 원칙
1.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제안된) 다른 영어 용어들에는 가능한 한 다른 한국어 용어들을 대응시킨다.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있으면 따른다.

이러한 원칙에서 1이 앞선다. 즉, 어느 정도 통용되는 용어들이 혼돈되어 또는 중의적으로 사용된다면 다소 특수하더라도 관련되는 영어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¹ 표현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 그 결과를 말하는 ‘해석’(interpretation) 또는 ‘의미해석’도, 어떤 이론에서는 특수한 전문용어로 사용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뜻으로 사용한다.

² 이 논문은 필자가 라이언스(J. Lyons)의 「의미론 1」과 「의미론 2」(Semantics 1, Semantics 2, 1977)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개념과 번역 용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여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결과의 일부이다. 라이언스의 「의미론」은 원전이 900쪽이 넘는, 의미에 관한 포괄적이고 방대한 저서로 “의미”의 여러 면들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 그리고 다른 거의 모든 종류의 주요 의미론 용어들을 다루고 있다.

역어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여러 다른 영어 용어들이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다른 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동을 방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하려는 “의미”(‘의미’의 의미)와 관련된 영어 용어들은 ‘signify, signification; reference/refer/referent, sense; denotation/denote, connotation/connote; extension, intension; implication/imply, implicature/implicate, entailment/entail; designate, demonstrate/demonstrative’이다. 이 용어들은 의미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초적인 용어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Lyons(1977)에 나오는데,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의미와 관련하여 늘 사용되어 온 것들이다(Dowty, et al. 1981, Jaszczolt 2002, Cann, et al. 2009 등). 용어들은 모두 우리말로 ‘의미(하다)’라고 번역할 만한 것들이며(영어로도 모두 ‘meaning’의 어떤 면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다소 어렵다. 실제로 의미론 문헌들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과 역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용어들이 구별되게 쓰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용어들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도록 우리말 번역어를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여기서 용어들의 개념 설명은 대부분 Lyons(1977)를 따르지만, 몬태규의미론(Montague 1974, Dowty, et al. 1981) 등 다른 방식의 사용법도 언급하도록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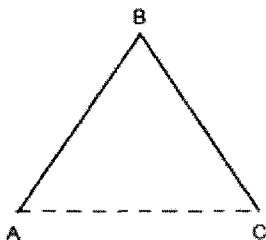
2. 기의작용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의 하나는 오그든과 리처즈(Ogden and Richards 1923)의 기의작용(signification)의 삼각형 이론이다. 단어와 표현은 사물을 표상하는(represent) 기능을 한다. 표상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것(기호)이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새’라는 말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대신한다. 기호가 혹은 기호로 사물을 표상하고 의미한다는 뜻에서 ‘signify’를 ‘기의하다’라고 하자(역어 선택의 이유는 곧 설명한다).

표현은 세상의 사물과 직접 연결되는가? 오그든과 리처즈의 대답은, 표현(언어)은 직접적으로 생각(개념)과 연결되고, 생각(개념)이 사물(세계)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의작용은 다음과 같은 삼각형으로 개념화되는데, A가 표현(언어), B가 개념(생각), C가 피기의물(세계), 즉 세상의 사물이다.

표현과 사물 사이에 있는 개념의 존재는 심리학과 소쉬르(Saussure 1916)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논리학과 철학의 전통, 그리고 그것을 이어

³ 용어들의 번역과 관련하여 한국언어정보학회(<http://society.kisti.re.kr/~ksli/>)의 의미-화용 분야 용어 표준화 이니셔티브에 정리되어 있는, 여러 의미론 학자들이 사용했던 역어들 및 이정민 외(2000)를 일부 참조하였다.



[그림 1] 기의작용의 삼각형

받은 모형의미론(model theoretic semantics)/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개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표현과 사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라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할 ‘의미’와 관련된 여러 용어와 개념들은 대부분 그러한 논리적, 철학적 관점을 반영한다.

‘signify’를 ‘기의하다’, ‘signification’을 ‘기의작용’으로 번역하는 것은 소쉬르의 용어 ‘signifiant’(시니피앙)이 ‘기표’, ‘signifié’(시니피에)가 ‘기의’로 보통 번역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소쉬르/최승언 역 1990). 소쉬르에게 언어의 기표는 청각영상이고 기의는 개념이다. 원래 ‘signification’의 역어로 ‘표의작용’을 고려했지만(그것도 적절해 보인다) ‘기의작용’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논의할 ‘denotation’과 ‘denote’의 번역 문제이다. ‘denotation’을 ‘표시의미’, ‘denote’를 ‘표의하다’로 번역할 것인데(4절 참조) 그것들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기의작용은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호에 해당한다. 즉 연기가 불을 의미하듯이 사물이 다른 사물을 기의할 수도 있다. 퍼스(Peirce 1940)는 기호의 종류를 지표(index), 도상(icon),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는 총탄 자국과 총의 발사 사이의 관계처럼 기호와 대상이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고, 도상은 지도와 지형 사이의 관계처럼 유사성으로 연결되며, 상징은 대부분의 언어 표현처럼 기호와 대상이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3. 지시와 뜻

의미론에서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키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지시’(reference, 프레게의 ‘Bedeutung’)와 ‘뜻’(sense, 프레게의 ‘Sinn’)이다. 지시는 일차적으로 표현과 세상 속 사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표현이 가리키는 세상 속 사물 자체는 지시물(referent)이다. 지시는 의미론적 관계라기보다는 화용론적 관계이다. 즉 어떤 표현이 그것 자체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맥락에서 사용될 때 어떤 지시물을 가리키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 같은 한정적 표현이 어떤 지시물을 가리키는가는 특정 맥락에서의 사용에 달려 있다. 다만 화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맥락에서 어떤 지시물을 가리킬 때 간단하게 그 표현이 그 지시물을 가리킨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는 있다.

여기서 ‘지시’로 번역하는 ‘reference’에 대해서는 ‘지시관계’, ‘지시의’, ‘화맥지시’ 등의 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지시물’로 번역하는 ‘referent’에 대해서는 ‘지시체’, ‘지시개체’ 등의 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⁴ ‘화맥지시’는 지시의 화용적, 맥락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학계에서 ‘지시’라는 용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표현이므로 ‘지시’가 ‘reference’의 역어로서 적절하다. 동사 ‘refer’는 ‘지시하다’이다.

‘뜻’(sense/Sinn)은 프레게(Frege 1982)가 지시 이상의 의미(‘생각’, thought/프레게의 ‘Gedanke’)로 상정한 것이다.⁵ 불투명(opaque) 문맥에서는 지시(물)가 같지만 뜻이 다른 표현들이 대치될 수 없다. 프레게가 사용한 ‘the Morning Star’와 ‘the Evening Star’의 예가 있고, 후설(Husserl)이 사용했다고 하는 예인 ‘예나의 승리자’(‘der Sieger von Jena’)와 ‘워털루의 패배자’(‘der Besiegte von Waterloo’) 같은 더 좋은 예도 있다(Lyons 1977). 이 두 표현은 모두 나폴레옹을 가리킨다(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따라서 ‘자크는 워털루의 패배자가 비겁하다고 믿는다’가 참이라고 해서 ‘자크는 예나의 승리자가 비겁하다고 믿는다’가 반드시 참은 아니다. 뜻은 기의작용의 삼각형으로 보자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인 사물보다는 생각(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sense’를 ‘개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concept’가 ‘개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sense’가 반드시 ‘concept’와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sense’의 역어로 ‘개념’은 적당하지 않다. 다른 역어들로는 ‘언어의’, ‘의의’, ‘어의’ 같은 것들이 있다. ‘의의’는 원래 ‘sense’의 뜻과 동떨어져 있고 ‘언어의’는 일상적인 아닌 다소 어색한 표현이므로 다른 적당한 표현이 있다면 선택에서 떨어진다. ‘어의’는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적으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영어의 ‘sense’가 매우 일상적인 단어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어에서도 좀 더 일상적인 단어인 ‘뜻’이 좋은 것 같다. 아울러 영어의 ‘sense’는 사전에서 한 표제어의 여러 의미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우리말의 ‘뜻’도 마찬가지로 용법이 있으므로 ‘sense’와 ‘뜻’이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예: ‘이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

언어 표현 중 고유명사, 지시대명사, 한정기술이 전형적인 지시 표현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개체(individual) 혹은 집단(group)을 지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명백히 지시대명사는 독립적인 뜻이

⁴ ‘지시’(reference)를 ‘지시물’(referent) 대신에 지시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지시’는 화자/표현과 지시 대상의 행위/관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시 대상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⁵ 프레게는 뜻(Sinn)이 각 상황에서 지시(Bedeutung)를 확인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Frege(1982) 등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고전적 저작의 참고문헌은 Lyons(1977), 그리고 일부 Dowty, et al.(1981)에 의존하였음.

없다. 고유명사도 크립키(Kripke 1963)의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뜻이 없다.⁶ 그러나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은 그렇지 않다. ‘저 영화의 감독’과 같은 한정기술은, 특히 도넬런(Donnellan 1966)의 속성적 사용의 경우, 뜻을 가진다(‘저 영화의 감독은 (분명히) 거의 미친 사람이다/사람일 것이다’). 지시를 가지지 않는 명사구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람’, ‘no boy’ 등 양화 명사구이다. 당연히도 일반명사를 포함한 서술어들 또한 어떤 사물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유명사와 한정기술의 지시와 의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지시물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가 있고(‘홍길동’), 하나의 지시물을 지시하는 두 개의 고유명사도 있다(‘춘원’, ‘이광수’). 후자의 경우 각 고유명사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며, ‘생각하다’의 보문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서로 대체할 수 없다. 한정기술 또한 의미 내용 없이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도넬런의 지시적 사용 포함). 나아가 비한정 표현(‘a boy’)까지도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특정적(specific) 용법을 보일 수 있다. 결국, 세밀하게 보면 비양화적인 명사구 표현들은 모두가 지시를 가지지만 그 지시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Jaszczolt 2002). 그러나 많은 문맥에서 그러한 세밀한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고유명사는 지시만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스(Lyons 1977)는 ‘뜻’을 관계로 결정되는 의미로 파악한다. 이것은 구조주의적 접근이다. 어떤 단어의 뜻은 그것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단어의 뜻들과의 관계(뜻관계: sense rel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하의관계, 반의관계, 유의관계, 부분관계 등 다양한 뜻관계가 특정 단어의 뜻을 결정한다.⁷ 현대의미론의 관점에서, 뜻에 관한 이러한 라이언스의 구조주의적 접근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은 뜻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치가 있다. 원래 프레게가 뜻을 생각(thought/Gedanke)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정밀하게 정의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학자들이 그것의 구체적 정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구하였다. 라이언스의 구조주의적 개념 외에도 다른 방식들이 있지만 모두 완전하지는 않다. 여기서는 ‘sense’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은 뜻관계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개념이든지 (프레게의 원래 의도를 따라) 지시 이상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⁶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다. ‘rigid designator’를 ‘엄밀지시어’로 번역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rigid designator’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개체를 지시한다는 뜻의 용어이므로 역어로 ‘고정지시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⁷ ‘sense relation’은 보통 ‘의미관계’라고도 번역되지만, ‘뜻’(sense)이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것을 ‘뜻관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미’가 비전문적 용어이므로 ‘뜻관계’를 경우에 따라 ‘의미관계’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표시의미와 암시의미

‘표시의미’와 ‘암시의미’는 각각 ‘denotation’과 ‘connotation’의 역어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 두 용어는 일상적으로 ‘외연’과 ‘내포’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미론에서 ‘외연’과 ‘내포’는 ‘extension’과 ‘intension’이라는 용어들의 역어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denotation’에 대해서는 ‘가능의미치’, ‘외연적 의미’, ‘일반지시’, ‘표의’ 등의 역어들이 제안되었다.

사실 ‘denotation’은 그 개념부터 다소 혼란을 준다. 원래 존 밀(Joph Stuart Mill)이 이 용어들을 처음 사용하였을 때에 한 말은 다음과 같다(Lyons 1977 재인용).

- (5) “‘희다’라는 단어는 모든 하얀 것, 즉 눈, 종이, 바다의 거품 등을 ‘denote’하고, 하양이라는 특질을 함의(imply), 혹은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connote’한다.” (Mill 1843)

존 밀에게 ‘denote’와 ‘connote’의 구분은 거의 오늘날의 ‘외연’과 ‘내포’, 즉 ‘extension’과 ‘intension’의 구분과 같았다. 그러나 오늘날 ‘connotation’은 어떤 표현이 가지는 비명시적, 정감적, 상징적 의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장미’는 영국을 암시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개미’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다. 즉 원래 단어가 가지는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부수적인 뜻을 가리킨다. 동사적으로 말하자면, ‘비둘기’는 평화를 암시한다(connote). 따라서 그러한 오늘날의 용법을 따른다면, ‘connotation’을 ‘암시의미’라고 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denotation’을 ‘표시의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표시의미’와 ‘암시의미’는 ‘denotation’과 ‘connotation’이 용어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것(Mill 1983) 그리고 그 형식들이 대응한다면 면에서도(‘{de, con}-notation’, ‘{표, 암}-시의미’)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참고로, 근래 코퍼스언어학의 중요한 개념인 의미운율(semantic prosody)은 연어(collocation)에 기인하는 평가적인 암시의미(evaluative connotation)를 말한다(Stubbs 1995, Lüdeling and Kytö 2009).

사실 오늘날의 일부 형식의미론 학자들은 ‘denotation’을 ‘reference/referent’(지시/지시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reference/referent’가 개체 혹은 집단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를 따른다면,⁸ 명시적, 표면적, 표시적 의미를 가리키는 ‘denotation’(표시의미)을 ‘reference’(지시)와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⁸ 집단(group)은 집합(set)과 다르다. 집합은 개체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집단은 개체의 모음 이상이다. 동일한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능이나 권한이 다른 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어 포상 위원회와 징벌 위원회가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도 하는 일이나 결정이 다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집합이나 집단과 다른 개체합(sum)의 개념이 복수의미론 사용되기도 한다(Link 1998, Landman 1989).

몬태규 의미론에서 ‘deno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모든 종류의 표현에 대한 의미값(semantic value)을 의미했다(Dowty, et al. 1981). 즉, 개체, 집합, 진리값, 내포 등이 모두 표시의미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표시의미는 개체(집단)와 진리값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표시의미는 원칙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등과 관련된) 집합 그리고 그 집합의 속성(내포)만을 가리킨다. 또한 동사적으로, 어떤 표현이 어떤 것(표시의미/암시의미)을 ‘표의하다’(denote)/‘암시하다’(connote)라고 할 수 있다. 이때 ‘connote’를 ‘암시하다’로 하지만 ‘denote’를 ‘표시하다’로 하지 않고 ‘표의하다’로 한 것은 우리말의 ‘표시하다’가 ‘mark’의 뜻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예: ‘동그라미를 표시하다’). 결국 표시의미를 지시와 동일시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라이언스의 주장을 따를 수 있다.

- (6) “그러나 우리는 ‘표시의미’(denotation)라는 용어를, 특정 경우에 따라 적합한, 어휘소와 개체들의 부류 또는 어휘소와 속성, 행위, 과정, 관계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사용하고 있다.” (Lyons 1977: 291)

위에서 ‘어휘소’는 단어라고 보면 되고, ‘부류’(class)는 집합(set)과 똑같은 것이다(실제로 어휘소는 단어 및 다른 의미단위를 포함한다).

5. 외연과 내포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sion)는 특수하면서도 포괄적이다. 이 용어들은 일상적 단어이면서, 또한 카르납(Carnap 1947) 같은 학자들이 특수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즉 어떤 표현의 외연은 그 표현이 어떤 세계에서 가리키는 대상이고(우리의 지시물, 표시의미) 그 내포는 가능세계(possible world)로부터 외연으로 가는 함수이다. 집합론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표현하자면, 범주 c 에 속하는 어떤 표현의 내포는 함수 $f: W \rightarrow EXT_c$ (W : 가능세계의 집합, EXT_c : 범주 c 에 대응하는 종류의 외연의 집합)이다. 일상적 단어로서의 ‘외연’과 ‘내포’가 보통 서술어(보통명사, 형용사, 동사)에 적용되는 것에 비하여, 카르납 등이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제시한 정의는 모든 종류(범주)의 표현에 해당한다. 고유명사와 대명사 등 전형적인 지시표현을 논외로 하면, 외연은 집합이고 내포는 속성이다. 즉, 외연과 내포는 앞서 설명했던 표시의미(denotation)이다.

부류의 표시의미로서의 외연과 내포는 다음과 같은 사전상의 정의와 일치한다.

- (7) ‘외연’과 ‘내포’의 사전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1989)

외연: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전 범위.

내포: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필연적

성질의 전체. 형식 논리학상으로는 이것과 외연은 반대 방향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다.

6. (실질) 함의, 함축, 논리함의

앞에서 언급한 지시와 뜻, 표시의미와 암시의미, 외연과 내포는 단어와 표현이 문화와 맥락 속에서 직접적으로 갖는 의미들이다. 의미 중에는 의식적, 무의식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생기는 의미가 있다. 그것들은 함의(implication), 함축(implicature), 논리함의(entailment)이다.

함의 혹은 실질함의(material implication)는 ‘ $p \rightarrow q$ ’ 등으로 표시되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이며, 정해진 진리조건(진리표)으로 해석된다. 즉, p 가 참이고 q 가 거짓인 경우 $p \rightarrow q$ 는 거짓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참이다. 함축은 대화상 혹은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이 가지는 추론적인 의미이다(Grice 1975, Horn and Ward 2007). 이것은 진리조건적 관계가 아니므로 강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논리함의는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참인) 모든 상황에서 다른 명제도 참이라고 하는 진리조건적 관계이다. 실질함의를 간단히 ‘함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논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논리함의는 ‘엄밀함의’(strict implication)와 같은 것이다. 간혹 논리함의를 논리적 필연성(necessity)의 양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Lyons(1977)도 그렇다), 따라서 ‘entailment’를 ‘필연함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논리함의는 다른 가능세계(possible world)를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 집합론적으로 표시하자면 p 가 q 를 논리함의한다는($p \Rightarrow q$) 것은 p 가 참인 경우(상황)들의 집합 A 가 q 가 참인 경우들의 집합 B 에 포함된다는 것이다($A \subseteq B$). 달리 말하자면, p 가 참인 모든 상황에서 q 도 참이다. 예를 들어, 실제세계에서 ‘종수가 사과를 먹었다’는 ‘종수가 과일을 먹었다’를 논리함의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과’와 ‘과일’의 외연이 실제세계에서와는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필연함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종수가 사과를 먹었고 명수가 배를 먹었다’는 ‘종수가 사과를 먹었다’를 논리함의할 뿐만 아니라 필연함의한다. 등위접속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7. 가리킴

앞에서 ‘지시(하다)’는 ‘reference/refer’의 역어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지시(하다)’는 ‘designate’, ‘indicate’, ‘demonstrate’의 역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indicate’는 사물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의미로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들은 아니다. ‘designation/designate’는 특정 사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정(하다)’이

적절한 용어이다. ‘demonstrate’는 ‘demonstrative’, ‘demonstrative pronoun’ 등의 용어에서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맥락에서 사물을 지적하여 보여준다는 뜻으로서 ‘this’, ‘that’ 등 대명사와 ‘this man’, ‘that girl’ 등의 명사구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한다. 이 표현들은 실제로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 특정 사물을 가리켜(지시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지시’를 사용하여 ‘지시사’, ‘지시대명사’로 불리어 왔다. 그러나 ‘지시’(reference)는 경우에 따라 언어 사용의 좁은 맥락이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 속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에 비하여(예: 고유명사의 지시물), ‘demonstrative’는 좁은 맥락 내에서 화자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만 사물을 지정한다. 따라서 ‘demonstrative’는 ‘지정사’ 혹은 ‘제시사’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designation/designate’를 ‘지정(하다)’으로 한다면 ‘demonstrative’는 그것과 구별되게 ‘제시사’가 더 적절하다. 영어의 ‘demonstrate’가 보여준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이므로 ‘제시사’, ‘제시대명사’, ‘제시형용사’, ‘제시부사’는 더욱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영문법에서 ‘demonstrative pronoun’이 ‘지시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용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절충적 대안은 ‘지시’(reference)와의 구별을 위해, 일부 국어 문법에서 ‘지시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 ‘가리킴(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⁹ 그렇다면 ‘가리킴말’(demonstrative), ‘가리킴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가리킴형용사’(demonstrative adjective), ‘가리킴부사’(demonstrative adverb)가 사용될 수 있다.

8. 요약과 예시

이상에서 논의한 의미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들 중 기의작용과 함의, 함축, 논리함의 등을 제외한 것들의 역어와 특성 및 적용 대상 표현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단, 표 1에서 지시표현 중 하나인 대명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명사는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어서 어떤 지시(물)을 가지지만, 다른 표현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모형의미론에서도 대명사의 해석은 모형(model) 내에서 정해지지 않고 개체의 열(sequence) 혹은 변형해석함수 g 에 의해서 따로 다루어진다. 즉 대명사의 지시는 모형, 즉 고정된 추상적 해석기반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해석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특히 양화사 해석을 위해서 그렇다).

이 표에서 고유명사의 뜻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명제태도(proposi-

⁹ 박철우 교수가 ‘demonstrative’ 번역의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었고, 전영철 교수가 ‘가리킴(말)’이 국어 문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만, 국어 문법에서 지시대명사 혹은 가리킴대명사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그’, ‘이것’, ‘어디’, ‘무엇’ 따위가 있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로 정의되어, 영어의 ‘demonstrative (pronoun)’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¹⁰ ‘표시의미’, 그리고 ‘외연’과 ‘내포’를 넓게 사용 할경우 집합의 원소, 즉 개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잠시 후에 논의한다.

[표 1] 의미와 관련된 용어, 역어, 특성, 적용 표현

용어	역어	뜻	지시	표시의미			암시의미
	원어	sense	reference	denotation	extension	intension	
대상과 특성	대상	기술적 의미 (뜻관계로결정)	개체/집단	집합 ¹⁰ / 속성	집합 (표시의미의 일종)	속성 (표시의미의 일종)	정감적 의미 문화적 의미
	특성	심리적	화용적, 맥락적	축자적, 명시적	현실(특정) 세계 고려	모든 가능세계 고려	문화적, 비명시적
적용 표현 범주	고유명사	×	○	×	×	×	○
	한정기술	○	○	○	○	○	○
	보통명사	○	×	○	○	○	○
	서술어/서술명사구	○	×	○	○	○	○
	양화명사구	○	×	○	○	○	○

tional attitude) 보고의 경우와 같은 초내포적(hyper-intensional) 맥락에서는 고유명사가 뜻을 가진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수는 이광수가 소설 ‘무정’을 썼다고 생각한다’가 참이지만 ‘중수는 춘원이 소설 ‘무정’을 썼다고 생각한다’가 거짓일 수 있다. 프레게의 ‘Sinn’은 고유명사의 뜻을 인정한다. 또한 한정기술 표현과 관련하여,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예에서 한정기술 표현은 비한정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하자.

이제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하여 뜻, 지시, 표시의미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표 2와 같다. 암시의미는 혼돈의 여지가 없으므로 예시하지 않는다.

표 1의 개념 정리는 대부분 라이언스(Lyons 1977)을 따른 것이지만, 표 2의 예시 중에서 내포는 형식(문태규)의미론, 양화명사구의 외연은 일반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 Barwise and Cooper 1981) 이론을 따랐다.

문태규문법 등 형식의미론에서 표시의미(denotation)를 의미값(semantic value)

¹¹ 우리말에서 이 표현은 비한정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여기서는 한정기술구임)

[표 2] 용어의 적용 예시 (EXT(w): 가능세계 집합인 W의 원소인 세계 w에 대하여 w에서 해당 표현의 외연)

용어	역어	뜻	지시	표시의미 denotation		
				외연	내포	
	원어	sense	reference	extension	intension	
적용 표현 예시	고유 명사	‘박찬욱’		인물 박찬욱		
	한정 기술	「박쥐」의 감독 ¹¹	영화 「박쥐」를 감독한 (그) 사람	인물 박찬욱	단원집합 {x x가 「박쥐」를 감독했다}	함수 f: f(w) = EXT(w)
	보통 명사	‘학생’	‘학생’의 기술적 의미 / 뜻관계		학생의 집합, 즉 {x x는 학생이다}	함수 f: f(w) = EXT(w)
	서술어(구)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기술적 의미 / 뜻관계		{x x는 아름답다}	함수 f: f(w) = EXT(w)
	양화 명사 구	‘각 학생’	‘각 학생’의 기술적 의미		‘학생’의 집합 H를 포함하는 모든 집합의 집합, 즉 {X H⊆X}	함수 f: f(w) = EXT(w)

과 같은 것으로 사용할 때에는 고유명사도 표시의미, 즉 외연과 내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연은 고유명사의 지시와 같고, 내포는 가능세계로부터 그 세계에서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개체로의 함수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크립키의 고정지시어 이론을 받아들이면 고유명사의 내포는 불변함수(constant function)이다. 단순화시켜 뜻을 내포와 동일시하고 지시를 외연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모든 표현은 외연(지시)과 내포(뜻)를 가진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표 3과 같다.

나아가 어떤 용법에서는 지시와 표시의미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시=표시의미=외연] : [뜻=내포]라는 단순한 대립관계가 성립한다. 지나치게 단순한 용어 적용이다. 이 경우 (그리고 사실 표 3의 경우에도) 현대의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시표현(referential expression)과 다른 표현을 구분할 수 없다.

표 3에서 보이는 외연=지시, 내포=뜻 용법은 많은 경우 잘 적용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초내포적 맥락(심리적 태도 등)에서 고유명사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또한 지시표현과 비지시표현을 구별할 수도 없다. 아울러 문장의 뜻 문제까지 보게 되면 뜻과 내포를 동일시하는 관점은 모든 내포적 맥락에서 문제에

[표 3] 단순화한 용어의 적용 예시 (외연 = 지시, 내포 = 뜻)

용어	역어	표현 예	표시의미 denotation	
			외연 = 지시	내포 = 뜻
	원어		extension = reference	intension = reference
	고유 명사	‘박찬욱’	인물 박찬욱	불변함수 f: $f(w) = EXT(w)$
	한정 기술	‘박쥐’의 감독’	인물 박찬욱 또는 단원집합 $\{x x \text{가 「박쥐」를}$ 감독했다}	함수 f: $f(w) = EXT(w)$
	보통 명사	‘학생’	$\{x x \text{는 학생이다}\}$	함수 f: $f(w) = EXT(w)$
	서술 어(구)	‘아름답다’	$\{x x \text{는 아름답다}\}$	함수 f: $f(w) = EXT(w)$
	양화 명사 구	‘각 학생’	‘학생’의 집합 H를 포함하는 모든 집합의 집합, 즉 $\{X H \subseteq X\}$	함수 f: $f(w) = EXT(w)$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항진명제는 모든 세계에서 참이기 때문에 모든 항진명제는 동일한 내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이가 1과 2를 더하면 3임을 안다’가 참이면 ‘아이가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빗변 길이의 제곱이 같음을 안다’가 참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문장의 뜻은 내포와 같은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여러 용어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언어 의미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 용어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논의하고 표 1에 요약해 놓은 바와 같이 각 용어에 대한 별개의 역어를 부여하고 그것들의 개념과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는 적어도 의미론 문헌에서 어떤 용어를 만났을 때 그것이 여기서 제시된 여러 용어/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민족문화연구원, 서울.
 소쉬르, 페르디낭 드. 1990 일반언어학 강의. 샤를 바이, 알레르 세슈에 역음, 최승언 옮김. 민음사, 서울.

-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2000. 언어학 사전, 3판. 박영사, 서울.
- 한국언어정보학회 의미-화용 분야 용어 표준화 이니셔티브 http://society.kisti.re.kr/~ksli/7s_00.html.
- Barwise, Jon and Robin Cooper.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159 - 219.
- Cann, R., R. Kempson, and E. Gregoromichelaki. 2009.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Meaning i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arnap, R. 1956. *Meaning and Necessity*,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Donnellan, K. 1966. Reference and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Reprinted in Steinberg and Jakobovits, 1971.)
- Dowty, D., R. Wall, and S. Peters. 1981. *Introduction to Montague Semantics*. D. Reidel, Dordrecht.
- Frege, G. 1892. Über Sinn und Bedeutung. *Zeitschr. f. Philosophie und philosoph. Kritik* 100. 25-50. English translation: On sense and reference. Geach and Back (eds). 1960.
- Geach, P. and Black, M. (eds). 1960.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Blackwell, Oxford.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P. Cole and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Academic Press, N.Y., 41 - 58.
- Horn, Laurence R. and Gregory L. Ward (eds). 2007.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Oxford.
- Jaszczolt, K. M. 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Meaning in Language and Discourse*. Longman, London.
- Kripke, S. A. 1963. Semantical considerations on modal logic. *Acta Philosophica Fennica* 16. 83-94.
- Landman, Fred. 1989. Groups, I,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 - 605, 723 - 44.
- Link, Goderhard. 1998. *Algebraic Semantics in Language and Philosophy*. CSLI, Stanford.
- Lüdeling, Anke and Merja Kytö (eds). 2009. *Corpus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1, 2*. Walter de Gruyter, Berlin.
- Lyons, J. 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ill, J. S. 1843.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
- Montague, R. 1974.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edited by R. Thomas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Ogden, C. K. and Richards, I. A. 1923. *The Meaning of Meaning*.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Peirce, C. S. 1940. *The Philosophy of Peirce: Selected Writings*. edited by J. Buchler, Kegan Paul, Trench, Tubner & Co, London.
-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Paris. English translation: *A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Philosophical Library, New York.
- Stubbs, Michael. 1995.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sodies: On the Cause of the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Foundations of Language* 2-1, 23-55.

접수 일자: 2011년 4월 23일

게재 결정: 2011년 6월 12일